

2010년 11월 5일 새벽말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거기에 해당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세계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계의 몸뚱이가 날아오는 것이 말씀이 날아오게 되고, 또 원자폭탄이 날아오던 것이 컵통이 날아와서 먹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모두 기도를 하게 되면, 역사의 모든 일이 보다 크나큰, 그래 놓고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 나가고, 정말로 무서운 세계들, 행사들을 여러분이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행사를 멋있게 해서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정도로 싹 해 보라는 것입니다. 감히 따라올 수 없어! 표가 확 날 정도로, 믿습니까? 고양이 눈썹에서 빛이 나면 얼마나 나겠어? 밤에. 호랑이 눈썹에서 빛이 나야지! 이 정도로, 환한 빛을 발하는 역사의 하나님의 선구자들이 되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성령을 선물로 줄 테니까. 뭐라구?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먼저는 물세례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가서는 불세례 주고, 진리 말씀 주고, 그렇지 않겠어요? 진리 말씀 주면 그 다음에 뭐 준다 했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것이 순서입니다. 괜히 물세례 받는다고 가서 비세례만 받고 오지 말고, 진땀만 빼고 오지 말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표가 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건 자기 책임분담이야, 그죠? 물론 여러분을 위해서도 올려주

고 하지만, 선생님께서 산꼭대기 올라가서 동쪽도 쳐다보고 기도하고 서쪽, 남쪽, 북쪽 하루에 다 못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는 거여. 동네 가보면 아무 흔적도 없어요. “예수가 뭐냐?” “예수쟁이, 에구” 그런다구. 그렇게 기도해주고 갔는데도, 나만 속타는구나. 그래도 그 마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동쪽과 서쪽과 이북을 위해서도 다 회개하고, 그들이 죄 때문에 저렇게 금강산 댐을 막고 있는 거여. 얼마나 무지합니까? 다 그들 위해서 이쪽을 위해서 다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섭리사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다 기도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의인된 취급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떨어지는 하늘의 역사의 말씀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모든 것뿐만 아니라 회개의 큰 능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회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니느웨성이 회개로 인해서 또 12만 명이 살아나는 큰 역사적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세계가 회개치 않음으로 해서 소돔땅이 완전히 섬멸되는 무수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크나큰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켜서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했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큰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해 주시고 내 우

편에 계셔 말씀하시고 강하게 설득시키고 말씀했습니다. 하늘의 천륜의 법칙을 다시 구약에서 신약까지 모두 이 시대까지 말씀했습니다. 은혜로 은총을 더해 주시고 금주에는 회개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성령을 물 붓듯 회개하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다음주부터는 성령을 물 붓듯 주시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받을 것을 다 받게 된다 하셨습니다. 말씀 받았지, 성령 받았지, 세례 받았지, 회개했지. 기록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성령께서 너희에게 뭘 어떻게 할 것을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 곧 진리의 영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평강과 공의가 함께 하고 이 민족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온 세계에 우리 아벨민족뿐 아니라 가인민족에 이르기까지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원수까지 사랑하면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스라엘민족을 하나님이 노발대발 때리시고, 또 그 민족을 갖고 다시 다 죽은 믿음 갖고, 다시 일으키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을 봅니다. 기록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주시고 이 모든 섭리를 가는 모든 자에게 근성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근본적으로 시대를 섬기고 역사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약할 때는 넘어지고, 강할 때는 일어선고, 어떻게 믿고 하나님이 그곳에다 기둥으로 삼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서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내가 선물로 받았을 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의 대열에 설 수 있는 선물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선물, 회개의 선물, 회개의 능력 이제 주제를 더 깨닫고 깨달았습니다. 이래서 회개의 능력이라는 말이 필요했구나, 이래서 회개가 능력이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라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왔다고 한 것입니다. 땅바닥에서 천국이 이뤄지고 있으니 회개하라. 네 마음 속의 천국이 이루어니 회개하라!! 천국의 정권은 돌아가고 있으니, 천국의 모든 법대로 돌아가고 있으니, 그러므로 귀신 사탄의 세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한 것을 회개하라 했습니다.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의 나라가 완전히 파괴된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나라가 파하고 쫓겨나니, 귀신의 나라가 파하니 하나님!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속이 답답한 것을 시원하게,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회개하고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까지 올라와 기도하고 회개하라 했습니다.

내가 어젯밤 꿈에 보니 우리 동네 앞에 내가 살던 마을 앞에 도랑물이 있는데 그 밑으로 빨래하러 갔는데 더러운 물이 내려와서 암만 기다리고 구정물이 지나가게 기다려도 안 멈추어 올라가서 보니 도랑이 지저분했습니다. 물

은 깨끗한 물이 내려오는데 오는 도중에 너무 오염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때 내가 꿈에 삽을 갖고, 곡괭이를 갖고, 깨끗하게 정리가, 도랑청소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올라가 보니 역시 외양간에서 더러운 물이 흘러가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돼지막에서 흘러가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닭장에도..., 그 때 내가 이르러 모든 것이 이런 오염된 물이 내려오고 있으니 빨래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혹시 빨았다고 할지라도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을 앞에 있는 모든 도랑을 내가 옛날에 모든 길을 내듯이 부지런히 괭이와 삽을 갖고 꼭 파내서 멋있게 도랑청소 멋있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오염되지 않는 물을 가지고, 그러면 깨끗하게 물을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주일동안 회개할 수 있고, 도랑청소 하라 했습니다. 동네 앞에 아까운 물에 앞 도랑에 역시 빨래하는 여인들을 깨끗케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역시 해야 되겠습니다.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치 않은 자! 하나님께서 칼을 갈으신다고 했습니다. 입에 있는 검으로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싸우다 졌다가는 그 때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판국이라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계획적으로 잠을 못 자게 하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젯밤에.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 회개거리를 주께 기도했더니 성령서부터 시작해서 흐르는 말씀의 맥을 잡았습니다. 주의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하

나님께 영광을,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이제 회개함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많은 기독교세계의 많은 종교인세계에 주여!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 회개할 터이니 생각날 때까지 회개하라 했습니다. 짊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죄들을. 그래야 회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남 빨래하는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빨래 보따리를 내가 짊어지고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빨래를 하라. 주여! 사랑과 은총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깨끗한 보배로운 피로 민족의 죄가 얼마나 크기에. 젊은 청년들이 동서남북으로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죄과이니 회개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민족의 젊은 청년들의 피값을 위해 기도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오니 기도를 들어주시고 백성의 죄를 덮어주는 자에게는 그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리라 하셨습니다. 이 백성의 모든 정치적인 죄, 백성의 죄, 종교의 죄, 부모들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계 19장)의 기독교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 백마 탄자를 보게 해 주시고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시고, 그들은 죽어도 왜 죽는지를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부딪힘, “하나님! 어디를 가시나이까?” “네 백성을 치러간다. 버린 백성을 치러간다.” “그러면 미디안 광야에서 약속한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일을 맡겼으니 끝까지 맡겨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쳐다보았습니다. “모세

야, 내가 올라가고 너는 가서 해 보려느냐?” 주님이 가졌던 심정을 모세도 가졌습니다. 종도 그런 심정을 갖고 있는데 형제야 오죽하겠습니까? 애인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심정을 모르는 죄가 가장 크다 했습니다. 심정을 모를 때는 흠어 버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진리의 나라, 심정의 나라를 건설해서 하늘과 땅을 서로 통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심정이 통해야 내가 살겠다고 했습니다. 심정의 애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심정을 아는 자가 더 큼니다. 이 나라를 용서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할 길이 없습니다. 이 민족에 큰 은혜와 큰 은총을 주시옵소서.우리가 회개치 않으면 도대체 이 역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더 깊이 회개해야 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죄값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평강과 의와 공의와 진리가 이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기도 영상이 끝까지 녹음되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